

● 협회 동정

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과별 실무위원 구성결과 ▲2006년도 6ICI 사업계획 ▲제9차 IIS심포지움(영국 에딘버그)에의 Joint Session 준비 상황과 6ICI 홍보용 부스 설치 추진 결과 ▲Scientific Program Tracks 설정 ▲6ICI 홈페이지 디자인 및 로

고 설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협회에서 6ICI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세계동위원소대회 유치를 통한 RT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에서는 6ICI 개최 준비활동으로 6ICI 홈페이지를 제작 준비하여 4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원자력인력양성사업 RI면허시험대비 과정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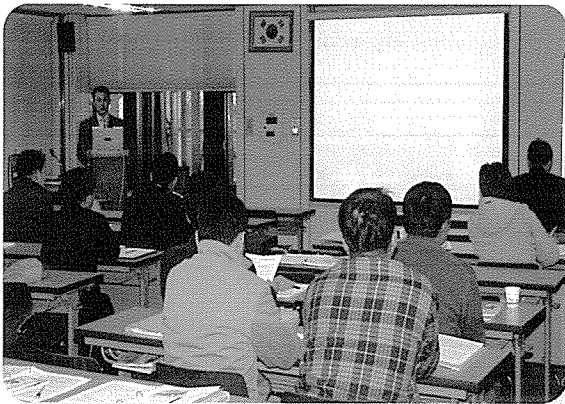
우리협회가 원자력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관련 전공 대학생 대상 RT실무전문가 지식제공프로그램』과제(연구기간 '05. 10. 1~'06. 9. 30) 중 2006년도 상반기 RI관련 면허시험 대비 교육 프로그램이 제주대학교 에너지공학과에서 종료되었다.

이번 교육과정은 오는 4월 2일에 실시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시험을 대비하여 ▶방사선에 의한 장애 및 방어 ▶원자력 이론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 및 측정기술 ▶원자력관계법령 등 총 4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과목당 4시간~6시간 씩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 수료인원은 총 123명(조선대 41명, 제주대 26명, 한양대 26명, 경희대 23명, KAIST 3명, 서울대 3명, 기타 1명)이며 동 사업의 일환으로 하반기에는 RT 현장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RI관련(일반면허, 감독면허, 특수면허) 면허자 보수교육실시



우리협회는 3월 23일(목) 협회 강의실에서 RI관련(일반면허, 감독면허, 특수면허) 면허자들을 대상으로 2006년도 첫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총 84명(감독자면허 13명, 일반면허

55명, 특수면허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면허자들의 방사선관련 기술 습득, 안전의식 고취 등을 목적으로 ‘방사선방호 현황(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최호신 센터장)’ 과 ‘국제테러정세 및 대응활동(국가정보원 변찬호)’ 및 ‘방사선안전관리 실무(성균관대학교 이상복)’ 분야를 동영상 등 시청각교육을 겸한 교육으로 실시되었다. 동 보수교육은 원자력법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하는 RI관련 면허자가 면허취득 후 매 3년마다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6년도 보수교육 대상자는 2003년도에 동교육을 이수한 자나 면허취득자로 올해 안에 필히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우리협회는 RI관련 면허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으로 방사선안전관리실무와 관련된 전문과정(2일 이상)을 마련 실시해 오고 있다.

방사선중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 구축사업 감리수행



우리 협회는 방사선중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 3차 구축사업(사업기간 : '05. 11~'06. 3 ; 4개월)을 완

료하고 한국전산원 감리법인등록업체인 (주)유엔위 감리컨설팅으로부터 감리를 수행하였다.

이번 감리는 지난 제1,2차 사업에 이어 제3차 구축사업의 ▲기록물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중사자 자율 안전관리 지원체계 ▲온라인교육일정 통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대한 추진사항을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시스템의 신뢰성, 안정성 및 프로젝트 진행 과정 등의 문제점을 점검 및 보완할 목적으로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부문 ▲응용시스템 개발부문 ▲데이터베이스 부문 ▲시스템구조 및 보안부문 등 크게 4 가지 항목에 대하여 3월 6일(월)부터 3월 13일(월)까지 6일간에 걸쳐 수행되었다.

제1차 편집위원회 회의 개최



우리협회 2006년 제1차 편찬위원회(위원장 채화목 협회장)가 3월 28일(금)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

다. 이날 회의에서 채화목 위원장은 동위원소회보가 독자로부터 더욱 사랑받기 위해서는 항상 유익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모든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의 중요성을 말하고 재차 편집실 실무자에게 편집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면서 2006년도 동위원소회보(봄호) 발간을 위한 감수와 동위원소회보 여름호 제작을 위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한편, 동위원소회보 여름호에는 방사선중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 구축사업의 종료에 따른 관련 시스템의 본격가동 특집기사를 비롯하여 2006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연차대회시에 소개되는 주제발표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수록하기로 하였다.

롯데칠성음료(주) 오포공장 방문

협회에서 발간하는 동위원소회보 2006년 봄호부터는 “방사선이용 산업현장을 가다”라는 코너를 신설하고, 그 첫 번째 방문지를 롯데칠성음료(주) 오포공장

으로 선정하여 3월 24일(금) 자유기고가 김현상씨와 협회 관계자가 함께 동 공장을 방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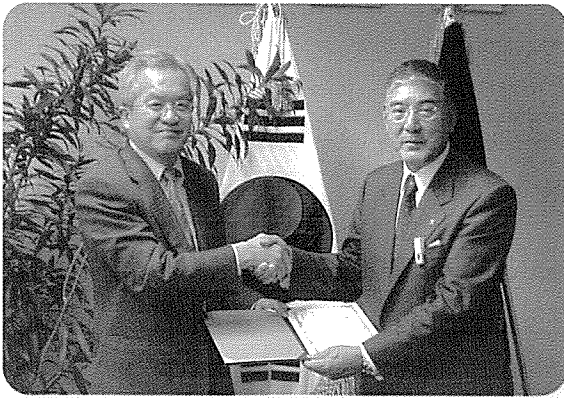
이날 오포공장 류기범 공장장은 인터뷰를 통해 올



해로 창립 56주년을 맞는 롯데칠성음료(주) 현황을 설명하고 협회가 앞으로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한편, 당 공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이석부 계장)는 공장 생산라인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오폭공장은 음료의 레벨 측정을 위해 방사성동위원소 Am-241이 내장된 FT-50(Fill Level Inspector-50)을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방사선발생장치도 도입하여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주)에스알에스 테크놀 대표이사 협회 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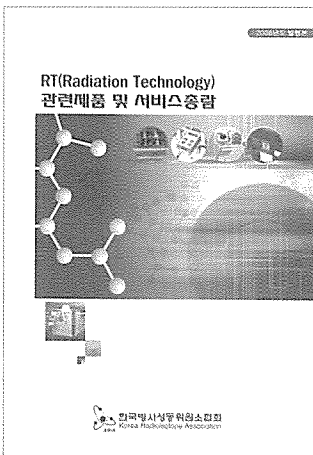


하였다. 이날 협회 정중혁상근부회장은 토시카즈 호소다 사장에게 협회현황 설명과 함께 회원증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줄것을 부탁했다. 이에 토시카즈 호소다 사장은 한국의 방사선이 용 발전에 노력할 것을 피력하며 여기에 우리협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주)에스알에스 테크놀은 2005년 5월 서울방사선 서비스주식회사(대표이사 하정우)와 일본국 치오다 테크놀사(사장 토시카즈 호소다)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006년 3월 2일 우리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다.

3월 20일(월) (주)에스알에스 테크놀 대표이사 토시카즈 호소다(일본)씨가 관계자와 함께 협회를 예방

「RT 관련제품 및 서비스총람」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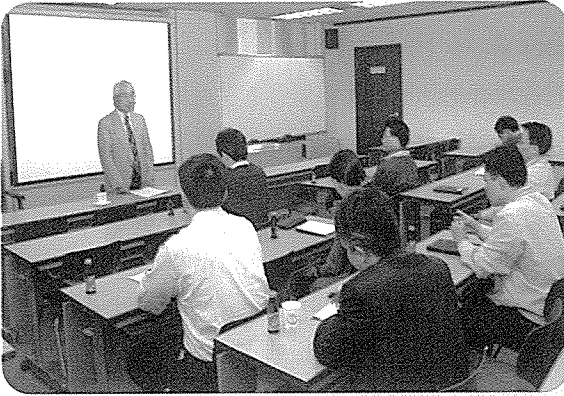


우리협회는 3월 2일(목) 「RT관련제품 및 서비스총람」책자를 발간하여 회원사 및 관련기관에 배포하였다.

「RT관련제품 및 서비스총람」은 국내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요·공급자간의 정보교류의 편익을 도모코자 발간한 책으로써, RT관련 취급기관 및 이용방사선원, 장비·장치, 각종 방호용품 등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였으며 부록으로 수출입요건확인절차 및 확인 품목대상을 추가하였다.

협회는 동 책자가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종사자, RI이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외부전문가 초빙 직무교육



협회는 직원의 다양한 지식취득을 통한 직무 향상 및 대 회원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매월 다양한 주제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이번달에는 3월 27일(월) (주)한빛파워서비스 전재풍 회장을 초청하여 '직장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한 직무교육을 협회 강의실에서 실시하였다.

4월에는 '기관별 특성에 따른 직업관'에 대한 강연이 계획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의 성과를 보아 전 회원 사예의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

유관기관 동정

과학기술부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정부검사 일변도에서 자율관리 도입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김우식)는 올해부터 방사성물질의 안전관리를 정부검사 일변도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2,700여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 중 허가대상인 1,000여 기관에 대하여 매년 1·3·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수행하여 왔으나, 해마다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이 약10%씩 증가하는데 비해 검사를 수행할 검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리하여 과거 일률적인 현장검사보다는 방사선 위험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안전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방사성동위원소 사업자에 대하여는 검사를 면제하거나 서류심사로 대체하여 사업자의 규제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과학기술부는 과거 정기검사에서 우수한 안전관리 실적을 보인 기관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에 대해 규제를 완화한다 해

도 안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안전관리 실적 평가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실·도난 발생 여부, 선량한도 초과 피폭자 발생여부, 과거 정기검사 실적, 안전교육·훈련 등으로 이루어지며, 금년 6월까지 개정될 원자력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방사성동위원소는 원자력발전소와 달리 방사선의 대량누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없으나, 적절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규모의 피폭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주로 생활권내에서 사용되는 특징이 있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용기관의 자발적인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

국내 방사선원 분실 사고는 주로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비파괴검사 업체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과학기술부는 '06년 1월 모든 비파괴검사장비에 GPS를 부착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방사선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다고 밝혔다.